

야고보서 여섯 번째 강의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1)

본문 : 야고보서 1:5-8

앞에서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극복하는 비결로 여기라 알라 이루라는 권면을 말한 후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한다. 환난을 극복하는데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자.

-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

지혜는 노력해서 얻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구하면 얻을 수 있다.

5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셋째, 지혜는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다.

-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풍성한 지혜를 얻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성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1. 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지혜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지혜란 기독교 유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또한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 해서 예수님을 말한다고도 했다. 위로부터 주신 신적인 선물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 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

이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매일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가는데 있어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냥 눈감고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다. 지난 기도 모임에 어떤 장로님이 요즈음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 개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내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혹은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의 필요성을 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왕상 3:5,9-12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처럼 유능한 왕이 어디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당시 세상 사람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환난이 있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자포자기 하고 마는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이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해결할 길이 있다. 이 때야말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

나는 한 선교 단체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 단체의 간사로 몇 년동안 일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어 가는 것 같지 않았다. 그 단체가 그렇게 가다가는 사회와 역사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이 문제가 너무 심했다. 그러나 그 단체는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그의 비성경적인 방식을 지적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마치 북한 김정은 앞에 나가서 그의 잘 못 된 통치 방법을 지적하는 것과 같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먼저 한 동료 간사와 아침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게 되었다. 그 간사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몇몇 간사를 접촉한 결과 그들도 똑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에 간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 단체의 지도자 몰래 속리산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모든 간사들은 그 단체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었다. 전 간사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 하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그 단체 지도자 L씨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결코 이 일을 순순히 받아 들일 사람이 아니었다. 한창 그 단체가 수백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국내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지도자 L씨의 권세는 하늘을 치솟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 들일 수 없었다. L씨는 그의 고도의 수단을 동원하여 때로는 위협, 때로는 사랑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간사들을 자기편으로 되돌렸다. 그리고 4명의 간사만 남았다. 의기충천 했던 개혁의 불길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L씨의 특유한 통제 방식은 4명중의 한 명인 나를 주동자로 지목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온갖 핍박을 쏟아부었다. 내 집을 빼앗아 버렸고, 해산 일주일 앞둔 내 아내와 2 자녀를 경기도에 있는 이름도 모를 곳, 난방도 안 된 곳으로 추방해 버렸다. 그리고 내가 담당한 사역지를 3명의 간사들을 파송하여 점령해 버렸다. 그들은 나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의 양떼들에게 나를 사단의 앞잡이로 쇠내시키고 있었다. 나는 집도 빼앗기고 사역지도 빼앗기고 가야 할 곳이 없었다.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나는 오갈 데 없이 여관에서 몇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어느날 밤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정쯤에 나에게 놀라운 지혜와 용기가 용솟음 쳤다.

단신으로 간사들과 학생리더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나의 사역지가 있는 센터를 찾아 갔다. 발길로 문을 걸어차며 문열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간사가 잠을 자다가 깨서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 주었다. 그를 만나자마자 “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였으니 당장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추방 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쇠뇌 당한 몇몇 형제들이 그를 도와 나를 밀치고자 했으나 그 간사가 두려워하여 혼비 백산하여 도망가고 말았다. 그래서 학생 리더들을 다시 설득하여 내 사역지를 되 찾게 되었다.

이 때 그 센터 건물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과 상대방이 수를 쓰지 못하도록 밤중에 찾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지혜였다. 뿐만 아니라 단신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단체와 싸움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었다.

내가 사단의 앞잡이라고 쇠뇌 당한 양떼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인 타오른 학생 사역은 3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사단의 말이 아닌가 하고 회의 적이었다. 때론 노골적으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학생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역경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다.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반드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